

고려시대 ‘찬란한’ 금속공예: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신 숙**

- I. 머리말
- II. 유물의 소장과 유래
- III. 주자와 승반의 현황과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의 美를 논하면서 고려시대(918~1392)의 특별한 무게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에 비해 고려만이 지닌 위상은 무엇인지도 오랜 시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 건국 1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마주하며, 각 분야에서 고려시대를 회고하고 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천년이라는 숫자에 지나친 상징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불행한 시대에 맞이한 1918년을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려를 어떻게 기념하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 본 논고는 2018년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연계 한국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려시대 ‘찬란한’ 금속공예: 은제도금 주자 및 승반」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미술사에서 고려는 정교하고 세밀한 나전칠기와 상감청자, 그리고 호화로운 장식의 금속기물로 대표되는 공예 문화의 절정기로 이야기되고 있다. 청자는 도기에서 자기로 진전된 새로운 변화지만 다른 분야는 기존의 전통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입사와 타출, 어자문, 나전 등은 일찍부터 등장한 공예 기법이지만 고려시대에 들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고려인이 선호한 미감을 충족하기 위해, 공예품 제작에 변화를 가져왔고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공예의 시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도1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고려, 주자 높이 34.3cm, 승반 높이 16.8cm, 미국 보스턴미술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국내와 해외 여러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특별 전시가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도 12월에 개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은 규모나 중량감에서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특별전 제목에 등장하는 ‘찬란한’이라는 수식어는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점에서 금속이 가진 재료적 특징에 더욱 적합한 뜻이기도 하며, 우수한 기량의 장식기법이 수반된 금속공예의 눈부신 성과에도 부합되는 형용사이다. 실제로 전시를 통해 고려의 아름다운 공예품이 다수 소개되고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속공예품 가운데 고려를 대표할 만한 위상을 가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유물로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을 꼽을 수 있다(도 1).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각광받는 고려의 유산이다. 그렇지만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전시된 공간에서 외형을 감상하거나 도록에 실린 사진을 참고하는 정도이며, 국외 소재하는 문화재로 주자와 승반의 내부 구조나 세부의 모습을 자세히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현실이다. 또한 출토 지역이나 발굴 과정, 동반 유물, 전래된 배경 등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고려의 ‘찬란한’ 금속공예품이지만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의 일면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유물의 소장과 유래

미국 보스턴미술관에는 한국의 미술품이 상당수 소장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76년 개관한 미술관은 서구화를 추진한 일본을 통해 많은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아시아의 컬렉션을 확대하였고 적지 않은 수량의 한국 유물도 수집하였다. 우리 문화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考古 유물에서 회화, 조각, 도자, 금속, 목공예, 민속품에 이르기까지 72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해 보고서가 출간되었다.¹ 당시 조사된 목록에는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도 포함되었다.²

보스턴미술관에서는 현재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을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12세기 유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조지 닉슨 블랙 기금(George Nixon Black Fund) 10,000달러를 사용하여 山中商會를 통해 구입하였고 신수품 취득 일자는 1935년 5월 2일로 기록하고 있다.³ 그런데 당시 아시아미술 담당 큐레이터였던 福田幸次郎는 헬렌 앤 앨리스 콜번 기금(Helen and Alice Colburn Fund)으로 구입한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고려 초기 유물로 추정하였다.⁴ 또한 주자와 승반은 개성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고 일정 기간 개인 소장품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이후 미술관에 입수되었다고 적었다. 보스턴미술관이 山中商會를 거쳐 수집한 한국미술품은 주자를 포함하여, 불화 2점과 사리장엄구, 동경, 금강령, 장도집 등 모두 7점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야마나카상회는 明治 후기부터 세계 2차대전 이전까지 大阪에 本店을 두고 고미술품을 거래한 무역상으로, 아시아의 문화재가 미국과 유럽으로 유출되는 대표적인 창구였다.⁶ 東京과 京都에도 거점을 두고 北京과 上海에는 出張所를 만들어 활약하였다. 商會를 이끈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郎, 1866~1936)는 189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보스턴에서 일본 공예품의

1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선승혜, 『보스턴 미술관 정책에 관한 고찰—아시아부의 역사와 활동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 6 (2004), pp. 179-203.

2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위의 책, 도판 365, p. 215, 320.

3 보스턴미술관 <https://www.mfa.org/collections/object/ewer-17938> 참고.

4 Kojiro Tomita, "A Han Lacquer Dish and a Koryo Silver Ewer from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3, no. 199 (1935), pp. 66-68.

5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 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pp. 101-126;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Kojiro Tomita, "Korean Silver-Work of the Koryō Period",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1 (1941), pp. 5-7 참고.

6 山本真紗子, 『美術商山中商會』, 『Core Ethics』(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 2008), pp. 371-382;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東洋の至宝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新潮社, 2011) 참고.

시판회를 열면서 호평을 얻게 된다. 이후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런던, 파리 등에 지점을 개설하고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미술품도 수집하고 판매하였다. 도록을 제작하여 고객에서 선 보이고 수십 차례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의 문화재를 상당수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山中商會가 간행한 전람회 도록이나 사진집을 통해 보스턴미술관이 주자와 승반을 구입한 1935년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934년에 東京에서 개최된 〈支那朝鮮古美術展觀〉이 주목된다.⁸ 우리나라의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자기류와 석탑, 장명등, 망주석 등 석조물이 전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모두 76점으로 많은 수량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1930년에는 東京과 大阪에서 〈世界民衆古藝術品展覽會〉가 열렸다.⁹ 현전하는 문헌을 보면 고려와 조선의 자기 100여 점을 목록에 올려놓았다. 그 가운데 일부 고려시대 청자는 출토지를 개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시 거래된 문화재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주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목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전반 山中商會가 한국의 문화재를 상당수 취득하고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에 나타나는 유물 중에 개성 출토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여, 주자가 개성에서 유출된 정황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도2 〈승반〉, 1935년 보스턴미술관 입수 당시 모습(Kojiro Tomita, "A Han Lacquer Dish and a Koryo Silver Ewer from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3, no. 199, 1935, p. 69)

개성의 무덤에서 출토된 주자를 개인이 간직하였고 다시 山中商會를 통해 보스턴미술관에서 구입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도굴과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겪으며 고려청자가 대량으로 반출된 시대적 상황과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의 문화재가 판매 목록에 다수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연성 있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목록에는 자기와 석조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속공예품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자와 같은 유물은 더욱 귀중한 수집품이었을 것이다. 미술관에 입수될 당시에는 표면의 부식층이 두껍고 잡물이 부착되어 청

7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주홍규, 「아마나카 상회와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한국학논총』 47 (2017), pp. 403-434.

8 山中定次郎, 『支那朝鮮古美術展觀』(山中商會, 1934) 참고.

9 大阪美術俱樂部, 山中商店, 『世界民衆古藝術品展覽會』(山中商店, 1930) 참고.

동 유물로 인식되었고(도 2), 보존연구소의 세척과 복원 과정을 거쳐 銀에 鍍金된 명품으로 확인되었다.

주자와 승반은 보스턴미술관에서 대표적인 아시아미술 소장품이었고 국내 학자들도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 유물은 아시아 미술품을 수록한 도록에 자주 실렸으며,¹⁰ 일본에서 출판한 『東洋美術名品集』에도 소개되었다.¹¹ 국내에서는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의 보존과 연구에 점차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자,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韓美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교류재단에서 재개관을 지원하였고 주자와 승반의 전시 환경도 나아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전자와 같은 수식이 덧붙여지면서 대중에게 강렬하게 인식되었고 미디어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루게 된다.'¹²

200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안아트미술관에서 고려 왕조의 미술을 대규모로 회고한 전시에 출품되어, 대표적인 금속공예품으로 유명세를 갖게 되었다.¹³ 이후 국내에서는 두 차례의 전시를 통해 실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9년에 열린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소개된 바 있다.¹⁴ 다음으로 2013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한국 전통공예의 미를 조명하는 <金銀寶貨> 전시에서도 감상할 수 있었다.¹⁵ 그리고 2018년 고려의 건국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고국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Ⅲ. 주자와 승반의 현황과 특징

1. 주자와 승반의 조합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은 주자와 승반이 세트를 이룬 기물이다(도 1). 은에 도금한 두 유물은 승반 안에 주자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내용물의 온기나 냉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형태로 추정된다. 주자와 승반은 대나무를 연결한 것처럼 리듬감 있게 굴곡진 몸체를 공유하며,

¹⁰ Museum of Fine Arts, Boston, *Asiatic art in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82), 도판 76, p. 88.

¹¹ ボストン美術館東洋部, 『ボストン美術館 東洋美術名品集』(日本放送出版協会, 1991), 도판 113, p. 131.

¹² 최응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전자” 문화유산뉴스 칼럼(2010, 10, 5) 참고.

¹³ Asian Art Museum, *Goryeo Dynasty-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1392* (2003), pp. 220-221.

¹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與民偕樂』(2009), pp. 166-167.

¹⁵ 삼성미술관 리움, 『金銀寶貨-한국 전통공예의 미』(2013), 도판 20, pp. 153-154.

주자에 달린 손잡이와 注口도 대나무를 응용한 형태로 만들었다. 뚜껑 하단에는 손잡이에 걸리는 큰 고리가 있고 상단에는 크기가 다른 언꽃 송이가 2단으로 배치되었다. 그 위에는 긴 꼬리와 날개가 달린 봉황이 앉아 있다. 만개한 두 연화는 각각 분리되고 상단은 봉황의 두 다리와 연결되는尖자가 달려 있는 구성이다.

주자와 승반은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조합이지만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금속과 도자로 다수 제작되었다. 먼저 注子는 몸체에 출수구와 손잡이가 있고 뚜껑을 갖춘 기형을 뜻하며, 魏晉南北朝時代 罍의 형태에서 변화되어 唐代 酒器로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李匡文의『資暇集』에는 元和年間(806~820) 초에는 술을 따를 때 ‘樽杓’를 사용했는데, 점차 주자를 사용하였다고 적었다.¹⁶ 즉 항아리에 담긴 술을 국자로 떠 잔에 옮기던 것에서, 주구와 손잡이, 뚜껑이 달린 주자에 넣어 따르는 방식으로 달라진 것이다. 陝西省 西安 西郊 魚化寨南二府藏에서 출토된 은제주자의 명문을 통해서도 술을 담았던 주자의 용도를 찾아볼 수 있다.¹⁷ 주자의 바닥면에 새긴 내용 중에 ‘酒注’라는 기형의 명칭이 주목되며, 술을 담았던 기물의 외형을 확인해 준다.

『高麗史』에도 注子는 여러 차례 언급된다. 大觀殿에서 백관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거나, 景靈殿 참배와 八關會 의식, 또는 왕비 및 왕자와 왕녀를 책봉한 후의 연회 등에서 술을 따르는 기물로 나타난다.¹⁸ 徐兢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水瓶을 중국의 酒注와 같다고 하면서, 은으로 만든다고 기록하였다.¹⁹ 한편 湯壺를 설명할 때는 溫器의 종류라고 덧붙이고 있다.²⁰ 문헌의 내용은 고려시대 주자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溫器를 활용한 것을 확인해준다.

중국에서는 승반을 溫碗이라고 부르며, 좀 더 익숙한 기형으로는 향로나 정병과 함께 사용

¹⁶ 李匡文, 『資暇集』 卷下, 注子偏提, “元和初 酌酒猶用樽杓 所以丞相高公有 斟酌之譽 雖數十人 一樽一杓 揖酒而散了無遺滴 居無何 稍用注子 其形若罍而蓋 觥 柄皆具 大和九年後 中貴人惡其名同 罍注 乃去柄安系 若茗瓶而小異 目之曰 偏提 論者亦利其便 且言柄有礙而屢傾仄 今見行用”

¹⁷ 현재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었으며, 바닥면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宣徽酒坊 咸通十三年元月十三日別勅造 七升 地字號酒注壹枚重壹百兩匠 臣楊存實等 監造蕃頭品臣馮金泰 都知高品臣張景謙 使高品臣宋師貞 朱捷元, 李國珍, 劉向群, 『西安西郊出土唐宣徽酒坊銀酒注』, 『考古與文物』(陝西省考古研究所, 1982.1), pp. 51-52; 揚之水, 『晚唐金銀酒器的名稱與樣式』, 『中國歷史文物』(2008.6), pp. 14-15.

¹⁸ 『高麗史』 卷61, 志第15 禮3; 卷65, 志第19 禮7 嘉禮1; 卷67, 志第21 禮9 嘉禮3; 卷68, 志第22 禮10 嘉禮4; 卷69, 志第23 禮11 참고.

¹⁹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 1, 水瓶, “水瓶之形 略如中國之酒注也 其制 如銀三斤 使副與都轄 提轄官位設之 高一尺二寸 腹徑七寸 量容六升”

²⁰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1, 器皿 2, 湯壺, “湯壺之形 如花壺而差匾 上蓋下座 不使泄氣 亦古溫器之屬也 麗人烹茶 多設此壺 通高一尺八寸 腹徑一尺 量容二斗”



도3 馮暉墓 남벽 동측 벽화, 五代, 중국 陝西省 彬縣

한 경우가 있다. 특히 뜨거운 물을 담은 용도라는 측면에서 향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呂大臨은 『考古圖』에서 東晉의 張敞이 저술한 『晉東宮舊事』를 인용하면서, 박산로 아래 반을 놓고 끓는 물을 담아 사용한 예를 전해준다.²¹ 또한 『선화봉사고려도경』의 博山爐 부분에는 승반에 끓는 물을 넣고 옷에 향기를 쏘이는 용도에 쓴다고 기록하였다.²² 즉 향로에 피운 향이 승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의 수증기와 만나, 연기처럼 흩어지지 않게 가두면서 옷에 향이 잘 배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헌기록을 통해서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는 승반의 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자와 승반 각각의 유래는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두 기물의 조합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승반 안에 주자가 놓여 있는 실제 사용 모습은 중국의 벽화로 찾아볼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예로 五代 馮暉墓가 주목된다.²³ 이 고분은 馮暉(894~952)가 사망하고 958년에 들어 陝西省 彬縣에 조성되었고 묘실의 남벽 동측 벽면에는 祭壇을 그려 넣은 장면이 남아 있다. 祭壇 위에는 여러 기물이 놓였는데, 중심 부분은 소실되었지만 한 쪽 끝자리에 굽이 높은 화형 승반에 뚜껑 달린 주자가 담긴 모습이 보인다(도 3).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王處直(863~923)의 고분(924)에

²¹ 呂大臨, 『考古圖』 卷10, “按漢朝故事諸王出閣則賜博山香爐 晉東宮舊事曰 太子服用則有博山香爐象海中博山下有槃貯湯使潤氣蒸香以象海之圓 環此器世多有之形制大小不一”

²²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0, 器皿 1, 博山爐, “博山爐 本漢器也 海中有山 名博山 形如蓮花 故香爐取象 下有一盆 作山海波濤魚龍出沒之狀 以備貯湯薰衣之用 蓋欲其濕氣相著 煙不散耳 今麗人所作 其上頂 雖象形 而下為 三足 殊失元制 但工巧可取”

²³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五代馮暉墓』(重慶出版社, 2001), 彩色圖版 59.

서도 다양한 내용을 표현한 벽화와 부조가 발견되었다. 河北省 曲陽縣에 위치한 무덤의 벽면에는 주자가 곳곳에 등장하지만 馮暉墓의 벽화처럼 승반을 함께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녀나 시종이 모두 직물로 감싸며 주자를 들고 있어, 내용물이 뜨겁거나 온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느낌을 자아낸다(도 4).²⁴ 두 고분을 비교해 보면 주자와 승반을 겹쳐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0세기 중반부터 점차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자와 승반의 조합을 창안하였고 이후 폭넓게 유행하며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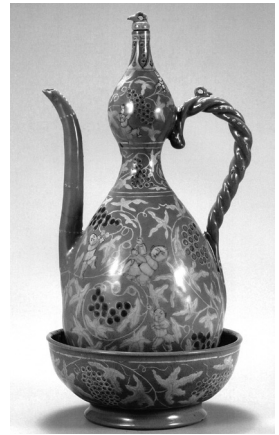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은 승반이 깊은 형태로 주자를 온전히 감쌀 수 있는 외형이다(도 5). 주자의 전체 높이는 34.3cm, 굴곡이 생기는 어깨부분의 몸체까지는 12.5cm, 어깨 너비는 15.7cm, 그리고 승반의 높이는 16.8cm, 지름은 18.8cm로 조사되었다. 두 유물을 겹쳐 놓은 상태에서는 높이가 38cm에 이른다. 실측된 크기를 보면 주자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와 승반이 맞물리고 몸체와 밀착되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성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상감포도동자문 주자와 승반>을 비교해 보면 간극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승반의 높이가 낮아 온기를 유지하는 용도보다는 받침의 역할만 강조된 듯하다(도 6).²⁵ 청자 주자의 크기는



도4 王處直墓 동벽 부조, 五代, 중국 河北省 曲陽縣



도5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6 <청자상감포도동자문 주자와 승반>, 고려, 주자 높이 34.5cm, 승반 높이 7.6cm, 국립중앙박물관

²⁴ 河北省文物研究所, 『五代王處直墓』(文物出版社, 1998), 彩色圖版 34, 36.

²⁵ <청자상감포도동자문 주자와 승반>은 1908년에 구입한 유물로 원래부터 세트로 제작되고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주자와 승반에 장식된 문양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존의 여러 전시에서도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주자에 비해 승반의 높이가 낮은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른 소



도7 <백자 주자와 승반>,北宋 1087년, 중국 安徽省 元祐丁卯年墓

도8 <墓主圖>,北宋,白沙 2호묘, 중국 河南省 禹縣

34.5cm로 은제주자와 거의 같지만 승반의 높이는 7.6cm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룬다.

보스턴미술관 소장품과 같은 특징은 중국에서도 보이는데, 江蘇省 鎮江 諫壁 北宋墓나 江蘇省 句容 北宋墓에서 출토된 주자와 승반에서 찾을 수 있고²⁶ 安徽省 元祐丁卯年墓의 <靑白磁獅子蓋注子>에서도 확인된다(도 7). 安徽省 출토품은 1087년으로 편년되는 기년명 유물이며, 주자와 승반의 비례나 모양, 동물 장식이 있는 뚜껑 등이 보스턴미술관 소장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內蒙古 巴林右旗에서 발견된 遼代 유물도 승반과 주자 몸체의 높이가 비슷하여, 같은 계통으로 파악된다.²⁷ 실물 자료와 함께 송과 요의 무덤 벽화에 묘사된 墓主圖나 茶備圖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도 8).²⁸

주자와 승반은 南宋의 유적인 四川省 成都市 西大街의 彭州窖藏에서도 출토되었고²⁹ 기형과 장식이 조금씩 다른 유물로 모두 9세트가 수습되었다.³⁰ 그 중에는 연화형 뚜껑, 주자의 어

장품이나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이데미즈미술관 등에 전하는 다수의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승반의 용도가 변화되는 경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26 肖梦龙, 「江苏镇江谏壁北宋墓出土的瓷器」, 『考古』(1980.3), pp. 246-247.

27 巴右文, 成顺, 「内蒙昭乌达盟巴林右旗发现辽代银器窖藏」, 『文物』(1980.5), pp. 45-52.

28 河北省文物考古所, 『宣化遼墓』(文物出版社, 2001); 宿白, 『白沙宋墓』(文物出版社, 2002);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4), pp. 153-192; 신숙,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 관계」,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pp. 240-241.

29 彭州市博物館,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彭州宋代金銀器窖藏」, 『文物』(2000.8), pp. 4-20; 彭州市博物館,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科學出版社, 2003).

30 이승란, 「송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사회적 의미-四川彭州窖藏 金銀器를 중심으로」, 『미술사학』31 (2016), pp. 20-24.



도9 <은제주자와 승반>, 南宋, 주자 높이 34.1cm, 중국 四川省 彭州市博物館



도10 <은제주자와 승반>, 南宋, 주자 높이 31.9cm, 중국 四川省 彭州市博物館

깨가 예리한 각도로 꺾인 점, 승반의 크기 등 고려의 유물과 흡사한 예도 있지만(도 9), 다른 형태의 기물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승반의 높이가 주자의 몸체 중간 부분까지만 덮는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도 10). 또한 기형의 세부와 장식의 특징도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北宋代와 달리 주자와 승반의 구성이 여러 계통으로 분화되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존 유물을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보면,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자의 몸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승반의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후 다양하게 변화하며 받침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실질적인 용도는 약화되면서 사라진 기물로 생각된다. 온기나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었는가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쓸모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명은 지역과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주자와 승반의 조합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기형이었는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려 이후에는 주자와 승반의 조합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 반면 술이나 차를 국자로 뜨는 불편함을 없애준 주자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제작 기술의 역량과 장식

주자의 몸체가 折肩이며, 길게 뻗은 注口, 긴 손잡이, 뚜껑, 꼭대기의 동물 장식, 승반의 조합 등은 중국 北宋에서 크게 발전되고 유행한 기형이다. 독자적으로 창안된 기물이 아님에도



도11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12 <은제도금 주자> 세부,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고려시대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우수한 제작 기술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은을 단조하여 형태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도금하였으며, 전면에 다양한 장식을 꾸며 넣었다. 오랜 시간 정성이 필요한 두드림의 미학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고부조 타출과 부드러운 곡선을 선보이고 세부까지 정교한 문양 표현은 기물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주자를 살펴보면, 낮은 굽 위의 몸체는 반쪽의 대나무를 연결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24개의 굴곡이 있다. 목 부분도 부드럽게 굴곡이 연결되지만 어깨는 날카롭게 직각으로 꺾였다. 다섯줄의 竹節形 손잡이가 유려하게 부착되었고 끝에 마개가 있는 죽순 모양의 주구가 길게 달렸는데, 모두 뿔뿔로 연결하였다. 뚜껑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크기가 다른 연꽃송이가 자리한다. 모두 타출기법으로 화려하게 만개한 연화를 표현하였고 맨 위에는 꼬리를 한껏 치켜 올린 봉황이 서있다.

주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뚜껑도 분리되지만(도 11), 원래는 손잡이에 걸리는 고리로 인해 탈착이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 고리의 한쪽이 떨어져 있어, 돌려서 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도 12). 또한 작은 부분이지만 잔편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뚜껑의 각 연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세 줄의 고리로 이루어진 장식이 보인다. 별도로 만든 부분을 서로 끼워서 연결할 때, 내부가 드러나지 않게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뚜껑의 꼭지는 비슷한 장식이 보이지 않아, 연결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도 13). 또한 새의 두 다리 주변으로 고리 모양의 흔적도 관찰되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형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13 <은제도금 주자> 세부,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승반도 주자처럼 24개의 굴곡으로 형태를 잡고 굽의 밑은 밖으로 살짝 벌어져 있다. 주자의 몸체보다 좀 더 굴곡에 깊이가 있고 굽도 강조되어, 전체가 꽃송이처럼 보인다. 주자와 승반의 굽은 높이가 다르고 제작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자는 몸체의 은판을 늘려 굽을 만들고 테두리에 다른 판을 덧대어 마무리하였다. 부분적으로 벗겨진 내부가 노출되어 있다. 승반의 높은 굽은 따로 제작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못으로 연결한 자국이 보인다(도 14). 굽의 끝부분은 도톰하게 처리하여 실용성과 함께 장식 효과를 주었다. 주자와 승반의 굽은 모두 몸체에 연결되는 굴곡이 있고 각 면마다 문양이 장식되었다. 주자에는 살짝 핀 꽃봉오리가 작게 나타나고 승반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획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활짝 핀 연꽃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과 측면판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새겨 넣었다. 이러한 장식은 주자와 승반의 몸체에도 비슷하게 반영되어 있다.

주자와 승반의 굴곡진 부분마다 연밥이 보이는 만개한 연꽃과 연꽃봉오리가 번갈아 음각되어, 세트를 이룬 기물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또한 승반의 상단과 굽의 끝단, 주자 몸체의 상단에도 일정하게 띠를 돌려 장식했는데, 마치 연꽃잎을 풀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뚜껑의 연화 송이 세부에도 같은 표현이 관찰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은제도금탁잔>의 반침 윗부분에 각각의 꽃잎을 타출로 두드려 만든 장식과도 연결되는 특징이다. 한편 주자와 승반의 몸체 하단에는 복판의 양련을 표현하였다. 비슷한 장식은 중국 五代의 주자와 승반부터 등장하고 北宋에도 보이는데,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은 선각으로 표현하여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주자의 뚜껑과 목이 연결되는 부분 양쪽 테두리는 뇌문이 둘러졌다. 주구의 끝부분도 같은 뇌문이 있는데, 이는 고려의 금속공예품에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³¹ 뚜껑의 하단에는 손잡이에 걸 수 있는 죽절형 고리가 달렸고 위쪽의 연꽃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물결과도 같은 무늬



도14 <승반> 내부,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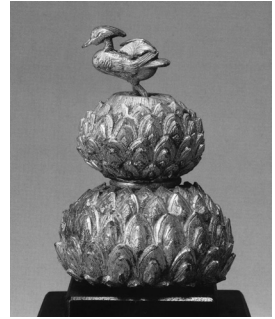
도15 <은제도금 주자> 세부,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16 <銀托>, 遼 959년, 높이 8.4cm, 중국 內蒙古博物館



도17 <은제도금 주자> 세부,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18 <금동연화형장식>, 고려, 삼성미술관 리움



를 돌렸다(도 15). 앞서 살펴본 <은제도금탁잔>의 상단과 하단에도 유사하는 문양이 테두리로 나타난다. 또한 요나라 959년의 편년을 가진 銀托의 굽과 전의 테두리에도 같은 특징이 반복되어, 영향관계를 참고할 수 있다(도 16).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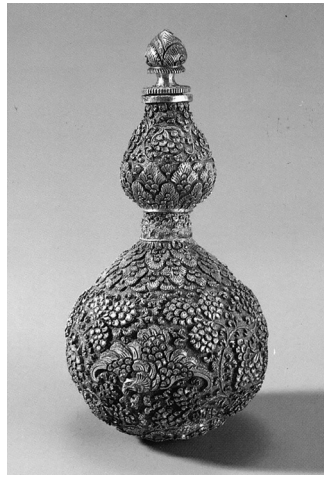
가장 화려한 부분은 뚜껑의 연꽃과 봉황이다(도 17). 9엽의 2층 반침을 두고 연꽃 송이를 올렸으며, 각 12개의 잎을 네 단으로 쌓아 만들었다. 잎은 살짝 밖으로 꺾여 활짝 피기 직전의 꽃송이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섬세한 타출기법을 응용하였고 겉면은 잎맥과 같은 세부를 선각으로 새겨 넣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든 작은 크기 연화가 위로 겹쳐 있으며, 그 위에 봉황이 있다. 벼슬이 강조된 머리에 날개는 펼쳐 올렸고 긴 꼬리는 동글동글 말아 올려 하늘을 향해 있다. 꼬리나 날개가 도식적이지만 오히려 권위와 위엄이 드러난다. 몸통의 세부는 선각으로 표현하였고 내부를 관통하는 막대로 주자에 고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 <금동대향로>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서로운 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삼성미술관 리움에는 주자의 뚜껑이 연상되는 금동 장식이 소장되어 관심을 끈다(도 18). 유물은 크기가 다른 연화가 이중으로 연결되고 꼭대기에는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이다. 기본적인 외형이 유사하고 꽃잎의 끝이 밖으로 뻗어듯 묘사된 세부도 일치한다.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새의 특징도 차이가 있지만 원래 뚜껑이었던 것으로

³¹ 고려시대 雷文의 유행은 倣古器物의 제작에서 비롯되었다. 뇌문은 대부분의 고당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장식이며, 倣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문양으로 선호되었고 다양한 기물에 표현되었다. 특히 文宗代(1046-1083) 왕 성했던 麗宋의 문물교류에 힘입어 宋代 倣古器物에 대한 취미도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숙,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미술사연구』 25 (2011), pp. 175-177 참고.



도19 <熾盛光佛降臨圖> 세부, 고려, 비단에 색,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20 <은제도금표형병>, 고려, 12세기, 높이 11.1cm, 국립중앙박물관

추정된다. 은제도금 주자와 같은 유물이 완형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식이지만 당시의 유행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주자와 같이 기물의 윗부분을 봉황으로 장식한 예는 鏡架에서도 확인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은제도금 거울걸이>는 두 개의 사각 틀을 서로 교차하여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거울을 매달아 사용하는 가구이다. 경가의 뒷부분 중심에는 거울을 매다는 고리가 필요한데, 연꽃송이에 얹은 봉황의 형상으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상단의 일부가 결실되어 완벽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타출기법으로 제작한 연꽃과 봉황의 특징은 주자의 장식과 유사한 계통으로 파악된다.

한편,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熾盛光佛降臨圖>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어 흥미롭다. 현재까지 유일한 고려시대 치성광여래도로 알려진 작품으로,³² 그림의 중앙에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치성광불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결가부좌한 여래의 좌우에는 협시보살과 天皇大帝, 月曜, 火曜, 明王을 비롯한 권속이 함께 하고 있다. 牛車는 실용적이면서 호화롭게 장엄하였는데, 여래 앞에는 불단이 마련되었고 뒤로는 높게 대를 세운 후 각종 구

³² 김일권, 「고려 熾盛光佛畫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 연구」, 『天台學研究』 4 (2002), pp. 277-370; 정진희, 「보스턴 미술관 소장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의 도상 고찰」, 『정신문화연구』 37-4 (2014), pp. 221-250.

슬과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³³ 특히 수레의 맨 위 정상부를 유심히 관찰하면 만개한 연꽃 받침 위로 봉황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도 19).

봉황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날개를 활짝 펼쳤고 위로 곧게 뻗은 풍성한 꼬리가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근엄한 외형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세부의 묘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자와 거울걸이에 등장하는 연꽃과 봉황의 구성이나 특징은 상당히 유사하다. 여래를 태운 牛車는 당시 왕실에서 사용하는 수레의 외형을 따라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왕실을 비롯한 최상층이 향유한 기물에 상서로운 봉황을 장식하는 경향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유행 배경이나 상징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주자와 승반은 기본적으로 연꽃을 주제로 장식하였다. 상부에는 꽃송이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하부에는 선각의 연화 받침을 두었으며, 몸체에는 연화문을 다양하게 변주하였다. 기법으로는 타출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는데, 표형병이나 장도집과 같이 전면 가득 고육각으로 빼곡하게 채운 것과는 다르게 활용하였다(도 20). 꽃송이에 유감없이 발휘된 타출기법은 다른 부분에서는 절제하고 선각으로만 표현하였다. 금속 재료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날카롭고 예리한 선을 자유롭게 다루면서도 몸체를 리듬감 있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균형 감각을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자와 승반은 문양 없는 빈 공간을 찾기 어렵지만 지나친 번잡함은 느낄 수 없다.

고려가 상당한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주자를 제작한 시기는 생각보다 이른 시대일 가능성이 있다. 『高麗史』에는 定宗 3年(948)에 은제주자의 사용이 나타나고,³⁴ 文宗代 1072년과 1080년에는 중국에 예물로 보낸 주자가 기록되었다.³⁵ 중국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한 솜씨가 인정되어, 왕실의 대표 물품으로 금속제 주자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또한 溫器의 종류로 고안된 특수기형이 등장하고 정착된 시기, 그리고 기능에 따른 구조의 특징이 중국 北宋과 연결되고 있다. 주자와 승반에 나타나는 문양의 종류와 세부 묘사 가운데 요대 유물과 비교되는 특징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타출기법의 기술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크기가 작

³³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2018), 도판 205, p. 347 참고.

³⁴ 『高麗史』 卷2, 世家 2, 定宗 3年(948), “三年 秋九月 東女真大匡蘇無蓋等來獻馬七百匹及方物 王御天德殿閱馬爲三等評定其價馬一等銀注子…”

³⁵ 『高麗史』 卷9, 世家 9, 文宗 26年(1072), “六月…甲戌 金梯還自宋帝附勅五道其一日…金注子一副重六十五兩紅梅花羅袂複封全紅梅花羅袂帕外罽”; 文宗 34年(1080), “其五日 省所上進金合二副盤盞二副注子一副紅鬪倚背一十隻紅鬪褥二隻長刀二十隻生中布二千匹蓼一千斤松子二千二百斤香油二百二十斤鞍轡二部細馬二匹螺鈿裝車一兩事具悉”

은 공예품에도 따로 떼어 붙인 듯 도드라진 문양을 빈틈없이 빼곡하게 장식하는 미감과 다소 구별되는 점도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스틴미술관 소장품은 기존에 자주 비교되었던 南宋代 四川省 彭州 窖藏 유물보다는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 11세기 후반에는 주자와 승반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보스틴미술관에 소장된 주자와 승반은 개성 인근의 무덤에서 수습된 유물이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장인이 진귀한 재료로 만들어낸 금속 기물은 왕실이나 정치적 핵심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공예품이며, 왕릉이나 궁궐터, 왕실이나 귀족과 관련된 사찰과 유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 시대와 달리 고려는 무덤에 다량의 부장품을 넣은 풍습이 줄고 왕릉이나 유적이 도굴된 경우도 많아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명확한 출토지와 절대연도를 가진 금속공예품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의 존재 가치는 특별하다.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유물이 많지 않지만 왕실의 연회와 의례에서 금은제 주자가 사용된 문헌기록과 보스틴미술관 소장품의 예술적 수준으로 볼 때, 왕실 고분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자는 항아리에 담긴 술을 국자로 뜨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기명으로 발전되었고 다음은 승반을 함께 사용하여 따뜻한 내용물을 오래 보관하면서 받침대의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주자는 唐代 酒器에서 비롯되었고 차와 탕, 물 등 다양한 액체를 담는 기물로 보편화되었다. 승반과 조합을 이루는 것은 기존에 北宋代 기형으로 보았지만 고분 벽화를 통해 五代부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고려시대 크게 유행한 후에는 점차 실제적인 기능이 줄어들고 받침의 역할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져갔다.

주자와 승반에 관련된 문헌기록과 기능에 충실한 기형의 특징, 문양의 세부 묘사 등을 관련 유물과 비교해 본 결과, 제작 시기를 1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고려시대 청자로 제작된 주자와 승반에 비해 금속 유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청동제 주자는 상당한 수량이 국내외 여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은제도금주자의 ‘찬란함’에 가려, 화려한 장식이 없는 청동주자는 주목받지 못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짝을 이루는 승반의 존재를 잊고 각각의 유물로 전 시되거나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다수가 선택하고 선호하는 기형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보스틴미술관 소장품을 제작할 수 있

는 역량도 동일한 과정을 겪으며 완성되었을 것이다.

주자와 승반은 고려시대 금속공예가 이룬 탁월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상에 필적하는 찬사를 받고 있다. 다수의 논문이나 저서, 도록 등에 언급되고 소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진전된 한걸음을 내딛고자 다각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유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과 국외 소재 문화재의 직접 조사나 관련된 자료 열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결실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주자와 승반의 조합, 제작 시기, 고려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을 거쳐 미국 보스턴까지의 여정, 오늘날 우리에게 인식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의 가치 등을 정리해 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고려(高麗, Goryeo Dynasty), 송(宋, Song Dynasty), 주자(注子, Ewer), 승반(承盤, 溫碗, Basin),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 투고일 2019년 3월 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5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呂大臨, 『考古圖』

2. 한국어 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與民偕樂』, 2009.

_____,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2018.

삼성미술관 리움, 『金銀寶貨-한국 전통공예의 미』, 2013.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선승혜, 『보스턴 미술관 정책에 관한 고찰-아시아부의 역사와 활동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6, 2004.

신 숙,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 관계』,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_____,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미술사연구』25, 2011.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이송란, 『송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사회적 의미-四川 彭州窖藏 金銀器를 중심으로』, 『미술사학』31, 2016.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주홍규, 『아마나가 상회와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한국학논총』47, 2017.

3. 동양어 문헌

大阪美術俱樂部, 山中商店, 『世界民衆古芸術品展覧会』, 山中商店, 1930.

大和文華館, 『建国1100年 高麗-金屬工藝の輝きと信仰』, 2018.

ボストン美術館東洋部, 『ボストン美術館 東洋美術名品集』, 日本放送出版協會, 1991.

山中定次郎, 『支那朝鮮古美術展觀』, 山中商會, 1934.

宿白, 『白沙宋墓』, 文物出版社, 2002.

彭州市博物館,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四川 彭州宋代金銀窖藏』, 科學出版社, 2003.

河北省文物研究所, 『五代王處直墓』, 文物出版社, 1998.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遼墓』下, 文物出版社, 2001.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五代馮暉墓』, 重慶出版社, 2001.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東洋の至宝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 新潮社, 2011.

山本真紗子, 『美術商山中商会』, 『Core Ethics』, 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 2008.

揚之水, 『晚唐金银酒器的名称与样式』, 『中國歴史文物』2008.6.

朱捷元, 李国珍, 劉向群, 『西安西郊出土唐“宣徽酒坊”銀酒注』, 『考古与文物』, 陕西省考古研究所, 1982.1, pp. 51-52.

肖梦龙, 『江苏镇江谏壁北宋墓出土的瓷器』, 『考古』1980.3.

巴右文, 成顺, 『内蒙昭乌达盟巴林右旗发现辽代银器窖藏』, 『文物』1980.5.

彭州市博物館,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彭州宋代金銀器窖藏』, 『文物』2000.8.

4. 서양어 문헌

Asian Art Museum, *Goryeo Dynasty-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1392*, 2003.

Museum of Fine Arts, Boston, *Asiatic art in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82.

Kojiro Tomita, “A Han Lacquer Dish and a Koryo Silver Ewer from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3, no. 199, 1935.

_____, “Korean Silver—Work of the Koryō Period”,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1, 1941.

국문초록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은 일제강점기 개성 인근의 왕실 고분에서 수습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1935년 일본 山中商會를 통해 보스턴미술관에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자는 항아리에 담긴 술을 국자로 뜨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기명으로 발전되었고 승반을 함께 사용하여 따뜻한 내용물을 오래 보관하면서 받침대의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승반과의 조합은 중국 五代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宋代에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되었고 점차 실제적인 기능이 줄어들면서, 받침의 역할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져갔다.

『高麗史』에는 은제주자의 사용이 948년으로 확인되고 1072년과 1080년에는 중국에 예물로 보낸 주자도 기록되었다. 또한 溫器의 종류로 등장하고 정착된 시기와 기능에 따른 구조의 특징이 중국 北宋과 연결된다. 주자와 승반에 나타나는 문양의 종류와 세부 묘사 가운데 遼代 유물과 비교되는 특징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타출기법의 기술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작은 공예품에도 따로 떼어 붙인 듯 도드라진 문양을 빈틈없이 빼곡하게 장식하는 미감과 다소 구별되는 점도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11세기 후반에는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The Splendid Metalwork of Goryeo - *Silver-gilt Ewer and Basin* at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

Shin Suk*

This set of a silver-gilt ewer and basin was presumably discovered in a royal tomb near Kaes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purchased from Yamanaka & Co. Ltd in 1935 by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hereafter, MFA). Ewers were invented as a container to facilitate the serving of liquor compared to ladling it from a jar. Basins functioned as a support for ewers while keeping the liquid inside warm. The practice of using a ewer and basin as a set began in Five Dynasties China and became increasingly popular during the Song Dynasty. In Korea, basins were frequently paired with a ewer starting in the Goryeo Dynasty. However, the function of keeping the ewer warm gradually declined, and basins eventually became simply supports for ewers before disappearing completely.

In the *History of Goryeo*, it is recorded that a silver ewer was used in 948, and it also recounts that Goryeo ewers were sent to the Chinese imperial court as gifts in 1072 and 1080. Moreover, ewers were classified as a warming vessel, as was the practice in China. Their structure was similar to that of contemporaneous ewers from Northern Song Dynasty China. In addition, some of the decorative designs on Goryeo ewers and basins are comparable to their counterparts from Liao Dynasty China. In terms of production technique, the MFA example does not display the mature characteristics of repoussé developed in Goryeo around the twelfth century, such as tiny dense patterns in high-relief. Therefore, the MFA set is likely to have been produced at the end of eleventh century.

*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